

기고

내 차 안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차량용 소화기 하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나들이와 이동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차량 화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매년 적지 않은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적 결함,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차량 내부에는 불에 잘 타는 소재와 연료가 함께 있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실제로 작은 불은 소화기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없다면 그 짧은 순간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도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장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전용 인증 제품을 구입해 운전석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용법을 한 번쯤 익혀두고, 압력 상태나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몇 초의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봄철에는 차량 점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엔진룸을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냄새나 연기가 느껴지면 즉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차할 때도 낙엽이나 쓰레기 등 불이 붙기 쉬운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준비가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봄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더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지길 바랍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다. 정권이 바뀌고 최첨단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잠으로 아비규환 속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인데도 그렇다. 보편적인 인간보다 더 영리한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엄청난 생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편리함과 안온함을 앞질러 가는 고통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그 언젠가는 알 수 있을까

점에 찍 한 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소란스럽게 살아가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온몸과 마음을 뚫겨거리게 하는 세상의 탁함 속에서 이 글귀가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변화하려고 하질 않는다. 거의 자기 위주의 일방통행식이다.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좇아 주지만 바람 뿐이다.

토론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주장만 내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TV 토론만 봐도 그렇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각기 자기주장만 하다가 퇴장한다. 다른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든지, 토론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거나는 방안을 강구해가려는 것을 보질 못했다. 뒷 때문에 했는지도 모를 정도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각자 상대방 생체가 내기에만 계거품을 몰고 있다. 갖은 패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만이, 아무런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다 살아갈 즈음, 묘비명의 주인공처럼 결국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로 삶의 질만 떨어지는 생을 살다가 말이다. 오호 통재라. 애재라.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매년 건조한 봄철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입니다.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 행위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단일한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부주의한 소각은 대형 산불의 주범입니다. 실제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수가 소각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봄철의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수만 평의 산

림으로 번지게 하며, 이는 소중한 자연자산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논·밭두렁 태우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해충을 방제한다는 과거의 인식과 달리, 소각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인 거미나 지표면의 유익한 곤충까지 사멸시켜 농사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원입니다.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노천에서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는 대기 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농업 부산물은 폐쇄하여 퇴비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관리 방식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먼저'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소각 멈추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사 송의근

작은 불씨 하나가 평생의 터전을 앗아갑니다

오늘의 운세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음력 2월 1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corresponding text for daily fortune.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 space-themed background with an astronaut. Text includes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and dates '2026.5.2. (토) - 5.5. (화)'. Location is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